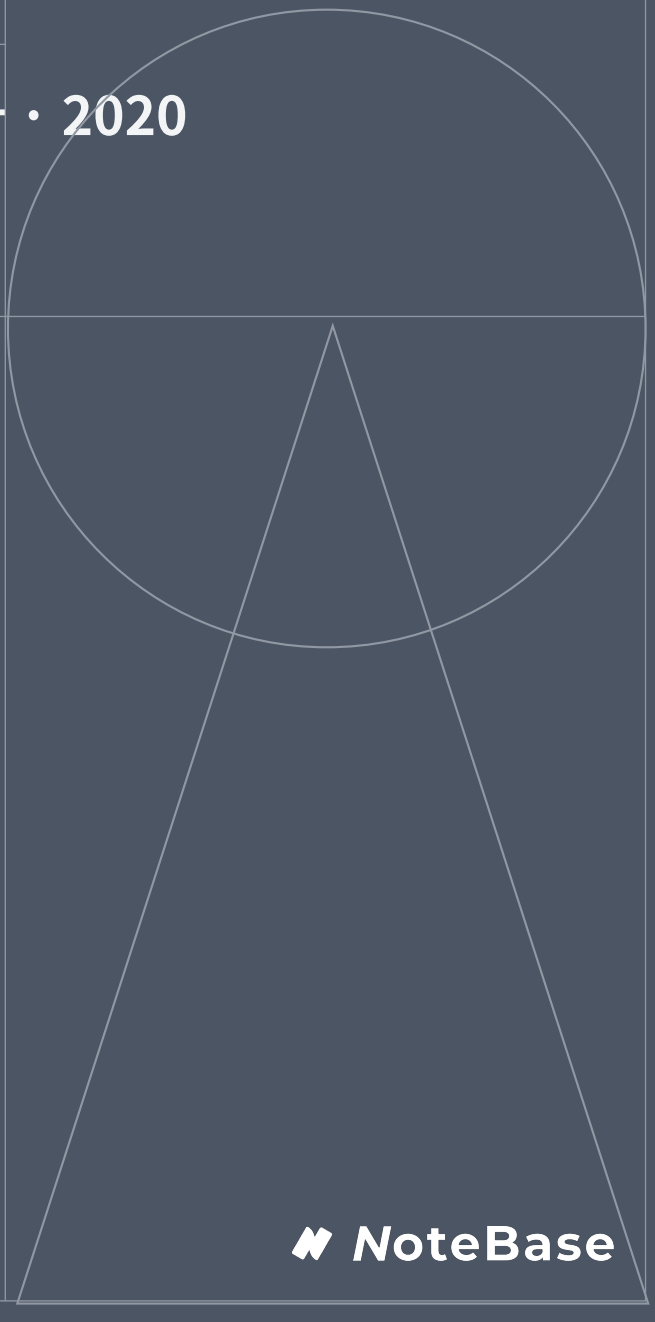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20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20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다.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사는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농경지가 없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우기가 부족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였다.

- 『삼국지』 -

①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②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③ 10월에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④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삼국지』의 지리·생활상 묘사를 통해 고구려를 찾고, 여러 초기 국가의 제천 행사와 풍습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구려는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농경지가 부족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며, 10월에 동맹을 열고 국동대혈에서 제사를 지냈다.
옥저는 민며느리제, 부여는 마가·우가·저가 등의 제가, 동예는 책화가 핵심 키워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혼인 풍습이다. 틀린 표현은 '민며느리제'이며, 고구려의 풍습으로 볼 수 없다.
② X. 마가·우가·저가 등의 가축 이름을 딴 제가가 왕 아래에 있었던 나라는 부여이다. 틀린 표현은 '해당 나라의 관리'이며, 올바르게는 부여의 지배층이다.
③ O.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④ X.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소·말로 변상하게 한 책화는 동예의 풍습이다. 틀린 표현은 '책화'이며, 올바르게는 동예의 풍습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민며느리제와 ④의 책화처럼 초기 국가별 고유 풍습을 서로 바꾸어 제시하는 함정이다. 특히 ③의 '10월·국동대혈'은 고구려 동맹을 가리키는 직접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서 산악 지형, 골짜기 생활, 식량 부족이 보이면 고구려를 먼저 떠올린다. 이어 제천 행사와 풍습을 짝지어 동맹은 고구려, 민며느리제는 옥저, 책화는 동예, 제가 제도는 부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구려 동맹·국동대혈, 옥저 민며느리제, 동예 책화, 부여 마가·우가·저가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모시며, 기록하기를 이처럼 한다.

① 16등급의 관등을 마련하고, 공복을 제정하였다.
②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③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④ 남으로 마한을 통합하고, 북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마왕으로 기록된 백제 무령왕의 재위 기간과 백제 왕들의 지방 통치·중앙 제도·대외 팽창 업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령왕은 6세기 초 백제의 왕으로, 지방의 유력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왕족을 지방의 22담로에 파견하였다.
성왕은 사비 천도 뒤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한 왕이다.
근초고왕은 마한을 통합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
신라 법흥왕은 16등급 관등과 공복을 제정하여 율령 체제를 정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16등급의 관등을 마련하고, 공복을 제정'한 왕은 신라 법흥왕이다. 틀린 표현은 무령왕의 재위 기간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법흥왕의 업적이다.
② X. 수도 5부와 지방 5방 정비는 사비로 천도한 뒤의 백제 성왕 업적이다. 틀린 표현은 무령왕의 재위 기간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성왕의 업적이다.
③ O. 무령왕은 왕족을 지방의 22담로에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④ X. 마한 통합과 고구려 평양성 공격은 백제 근초고왕의 업적이다. 틀린 표현은 무령왕의 재위 기간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근초고왕의 업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관등·공복은 신라 법흥왕, ②의 5부·5방은 백제 성왕, ④의 마한 통합·평양성 공격은 백제 근초고왕의 업적이다. 백제 왕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무령왕과 성왕·근초고왕의 업적을 섞지 않도록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령왕의 대표 키워드로 사마왕, 무령왕릉, 22담로와 왕족 파견을 먼저 확인한다. 5부·5방이면 성왕, 마한 통합과 평양성 공격이면 근초고왕, 16관등과 공복이면 신라 법흥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령왕은 22담로, 성왕은 5부·5방, 근초고왕은 마한·평양성, 법흥왕은 16관등·공복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지도 속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의 역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 기획서의 제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눌, 이곳에서 꿈꾼 고려 불교의 개혁

② 병자호란, 그 쓰라린 패배의 현장

③ 철종, 국왕이 될 줄 몰랐던 시골 소년의 이야기

④ 의궤, 프랑스에서 다시 찾은 조선의 문화재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화도와 관련된 역사 사건·인물·문화재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강화도는 병자호란 때 왕실이 피란한 곳이며, 철종이 왕이 되기 전 살던 곳이고, 외규장각 의궤가 보관되었던 곳이다. 지눌은 고려 불교의 개혁을 추구한 승려이지만 그 활동의 중심지는 강화도가 아니라 순천 송광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지눌은 결사 운동을 통해 고려 불교의 개혁을 추구하였으나, 강화도와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곳에서'이며, 올바르게는 '순천 송광사에서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을 추구하였다'이다.
② O -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했고, 왕실은 강화도로 피란하였다. 이후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되면서 조선이 항복하게 되었으므로 강화도는 쓰라린 패배와 관련된 현장이다.
③ O - 철종은 왕위 계승과 거리가 멀었던 강화도령 이원범으로 살다가 헌종 뒤 왕위에 올랐다.
④ O - 외규장각 의궤는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다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고, 뒤에 반환되었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고려 불교 개혁'이라는 지눌의 업적 자체는 맞지만, 이를 강화도와 연결한 '이곳에서'가 틀렸다. 인물의 업적과 활동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사 문제에서는 사건·인물·문화재를 각각 지역과 짝지어 판단한다. 강화도는 병자호란의 왕실 피란, 강화도령 철종, 외규장각 의궤를 우선 연결하고, 지눌은 송광사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강화도 = 병자호란 왕실 피란·철종의 강화도령 시절·외규장각 의궤, 지눌 = 송광사 수선사이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대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한 제국이다.

… (중략) …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派送) 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제로 파견하는 것이다.

— 「대한국 국제」 —

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였다.
② 국가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였다.
③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철도 부설을 시도하였다.
④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표방한 「대한국 국제」 시기의 광무개혁 내용과 갑오개혁기의 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권을 강화하고 근대적 토지·재정·군사 제도를 정비하려 한 개혁이다.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은 토지 제도 정비, 탁지부를 통한 재정 일원화는 재정 정비, 원수부 설치는 군 통수권 강화와 관련된다.
갑오개혁기의 탁지아문은 국가 재정을 관장한 관청이며, 대한제국 시기에는 탁지부가 재정을 맡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대한제국은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② X. 틀린 표현은 '탁지아문'이다. 탁지아문은 갑오개혁 때의 재정 관청이고, 대한제국은 탁지부를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③ O. 대한제국은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철도를 자주적으로 부설하려 하였다.
④ O. 대한제국은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 통수권을 직접 장악하도록 하였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재정 일원화라는 대한제국기의 내용에 갑오개혁기의 관청명인 '탁지아문'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관청 이름의 시기를 바꾸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한제국·광무개혁 관련 선지는 토지 정비, 재정 일원화, 철도 부설, 황제권 강화가 함께 제시되는지 확인한다. 관청명은 갑오개혁의 탁지아문과 대한제국의 탁지부를 시기별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대한제국은 지계·탁지부·원수부, 갑오개혁은 탁지아문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문화유산이 간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지심체요절』은 백운화상이 저술한 책을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1972년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① 원 황실은 북쪽으로 도망가고 명이 건국되었다.

② 기존의 토지 문서를 불태워 버리고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③ 원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와 원의 지식인들이 교류하였다.

④ 명은 철령위를 설치한다고 고려에 통보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에 간행된 고려 말의 유물임을 바탕으로, 고려와 원·명의 대외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 1392년에 멸망한 왕조이다. 충선왕은 원에 만권당을 두어 고려와 원의 지식인이 교류하게 하였고, 명은 고려 말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였다. 과전법 시행은 고려 말 공양왕 때의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원 황실이 북쪽으로 물러나고 명이 건국된 것은 1368년 공민왕 때의 일이다. 직지가 간행된 우왕 때의 설명은 아니다. 틀린 표현 → '직지가 간행된 왕대'가 아니라 '공민왕 때'이다.
② X. 기존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과전법을 시행한 것은 고려 말 공양왕 때의 일이다. 틀린 표현 → '직지가 간행된 우왕 때'가 아니라 '공양왕 때'이다.
③ X. 원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와 원의 지식인이 교류한 것은 충선왕 때의 일이다. 틀린 표현 → '직지가 간행된 우왕 때'가 아니라 '충선왕 때'이다.
④ O. 명은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고려에 통보하였다. 이에 고려는 최영의 주장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졌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원·명·고려 말의 사건을 모두 14세기 후반에 배치하면 혼동하기 쉽다. 특히 만권당은 충선왕 때, 과전법은 공양왕 때, 철령위 통보는 우왕 때라는 재위 시기를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화유산의 간행 연도와 재위 왕을 먼저 연결한 뒤 사건의 시기를 대조한다. 만권당은 충선왕, 과전법은 공양왕, 철령위 설치 통보는 우왕으로 연결하면 선지를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충선왕 만권당, 공양왕 과전법, 우왕 철령위 통보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의 군사제도를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중앙군인 5위를 두어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게 하였다.
(나) 10정을 두었는데, 9주 가운데 8주에 1정씩 배치하고, 국경지대인 한주(漢州)에는 2개의 정을 두었다.
(다)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라)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 수도 및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① (가) → (라) → (나) → (다)
② (가) → (라) → (다) → (나)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라) → (가) → (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대별 군사 제도의 성립 순서를 묻는다. 각 제도가 어느 왕조의 제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올바른 순서

1. (나) — 통일 신라에서는 9주에 1정씩 두고 한주에 2정을 두어 모두 10정을 편성하였다.
2. (라) — 고려는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및 국경 방어를 맡은 6위로 중앙군을 편성하였다.
3. (가) — 조선은 중앙군으로 5위를 두어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게 하였다.
4. (다) — 조선 숙종 때 금위영이 설치되어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왜 이 순서: (나)는 통일 신라, (라)는 고려, (가)와 (다)는 조선의 제도이며, 금위영 설치는 조선 전기의 5위보다 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나)의 10정은 통일 신라의 지방군 제도이므로 고려의 2군 6위와 조선의 5위보다 먼저이다. 틀린 순서: (가)→(라)→(나)→(다) → 올바르게는 (나)→(라)→(가)→(다)이다.
② X — (나)를 마지막에 둔 것이 틀렸다. 10정은 통일 신라의 제도이고, 금위영은 조선 숙종 때 설치된 제도이다. 틀린 순서: (가)→(라)→(다)→(나) → 올바르게는 (나)→(라)→(가)→(다)이다.
③ X — 고려의 2군 6위인 (라)는 조선의 5위인 (가) 및 금위영인 (다)보다 앞선다. 틀린 순서: (나)→(가)→(다)→(라) → 올바르게는 (나)→(라)→(가)→(다)이다.
④ O — 통일 신라의 10정, 고려의 2군 6위, 조선의 5위, 조선 숙종 때의 금위영 순서가 맞다.

오답 포인트

(가)와 (라)는 모두 수도 방어와 관련된 중앙군 제도라 시대를 뒤바꾸기 쉽다. 2군 6위는 고려, 5위는 조선의 제도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군사 제도 순서 문제는 먼저 왕조를 통일 신라·고려·조선으로 분류하고, 같은 조선 안에서는 5위가 금위영보다 앞선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0정은 신라, 2군 6위는 고려, 5위와 5군영은 조선이다.

NoteBase

문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은/는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가 모여 결성된 조직으로, 총사령 박상진을 중심으로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① 공화제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②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를 공격하였다.
③ 북간도에서 무장 독립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④ 경상도 일대에서 결성되어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이 결합해 만든 대한광복회의 활동과 다른 독립운동 단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한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 결사로, 독립군 양성을 위해 군자금을 마련하고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중광단은 북간도에서 대종교 계열 인사들이 조직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이다.
대한광복회는 국내 경상도 일대에서 출발해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중광단은 북간도에서 조직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대한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제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② O.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군자금을 모금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북간도에서 무장 독립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한 것이다. 중광단은 대한광복회가 아니라 북간도 대종교 계열이 조직한 단체이다.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조직되었다.
④ O. 대한광복회는 경상도 일대에서 결성된 뒤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라는 공통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북간도 · 중광단'은 대한광복회의 활동이 아니다. 대한광복회는 국내 비밀 결사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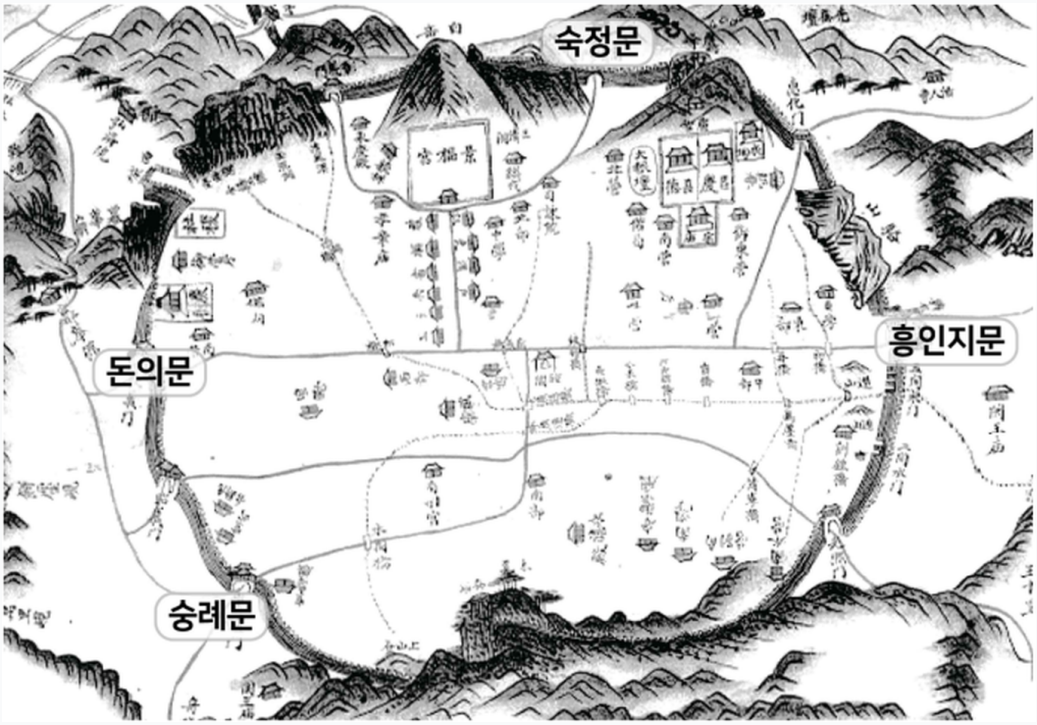
박상진, 의병·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결합, 군자금 모금, 친일파 처단이 제시되면 대한광복회로 판단한다. 이어서 단체의 조직 지역과 계열이 맞는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대한광복회=박상진·국내 비밀 결사·군자금·친일파 처단 / 중광단=북간도·대종교 계열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 문종 때에 남경(南京)으로 승격되었다.

② 종루(鐘樓), 이현, 칠패 등에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③ 정도전은 궁궐 전각(殿閣)과 도성 성문 등의 이름을 지었다.

④ 성곽은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약 2년 만에 완성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그림은 숙정문·흥인지문·숭례문·돈의문이 표시된 조선 한양 도성이다. 한양의 고려·조선 시대 변천과 상업·건설 관련 사실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양은 고려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되었다.
② O. 조선 후기 한양에서는 종루·이현·칠패 등이 상업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③ O. 정도전은 경복궁과 근정전·사정전 등 궁궐 전각의 이름을 짓고, 흥인지문·숭례문 등 도성 성문의 이름도 지었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실록』에 전한다.
④ X.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약 2년 만에 완성한 성곽은 한양 도성이 아니라 정조 때 축조된 수원 화성이다. 틀린 표현인 '성곽'은 '수원 화성'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한양 도성의 사대문 지도를 제시한 뒤 수원 화성의 축성 특징인 거중기와 약 2년의 공사 기간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대문이 표시된 지도로 한양 도성을 확인한 뒤, 남경 승격·종루·이현·칠패·정도전의 전각과 성문 명명은 한양 관련 사실로, 거중기·약 2년 축성은 수원 화성 관련 사실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한양 도성은 사대문·남경·종루·이현·칠패, 수원 화성은 정조·거중기·약 2년이다.

NoteBase

문 9. 임진왜란의 주요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저지하였다.
(나) 조선 수군이 명량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다) 이순신이 옥포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라) 조명 연합 수군이 노량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마)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① (가) → (다) → (마) → (라) → (나)
② (가) → (마) → (다) → (나) → (라)
③ (다) → (가) → (나) → (마) → (라)
④ (다) → (가) → (마) → (나) → (라)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와 사건을 발생 시기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다) 옥포 해전 승리 — 1592년 5월, 이순신이 거둔 첫 해전 승리이다.
2. (가) 제1차 진주성 전투 승리 — 1592년 10월, 김시민이 진주성을 지켰다.
3. (마) 평양성 탈환 — 1593년 1월,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았다.
4. (나) 명량 해전 승리 — 1597년 9월, 이순신이 정유재란 중 승리하였다.
5. (라) 노량 해전 승리 — 1598년 11월, 조명 연합 수군이 일본군을 물리쳤다.

왜 이 순서: 옥포 해전과 제1차 진주성 전투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에 일어났고, 평양성 탈환은 그 다음 해이다. 명량 해전은 정유재란기이며, 노량 해전은 전쟁 마지막 해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 뒤에는 평양성 탈환인 (마)가 와야 한다. 틀린 표현: (가)→(다) → 올바르게는 (다)→(가)이다.

② X
(가) 다음에 (마)가 오는 점은 맞지만, 옥포 해전 (다)이 제1차 진주성 전투 (가)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 (가)→(마)→(다) → 올바르게는 (다)→(가)→(마)이다.

③ X
명량 해전 (나)은 1597년이고 평양성 탈환 (마)은 1593년이다. 틀린 표현: (나)→(마) → 올바르게는 (마)→(나)이다.

④ O
옥포 해전(1592) → 제1차 진주성 전투(1592) → 평양성 탈환(1593) → 명량 해전(1597) → 노량 해전(1598)의 순서가 맞다.

오답 포인트

1592년 사건인 옥포 해전과 제1차 진주성 전투의 선후, 그리고 1593년 평양성 탈환과 1597년 명량 해전의 선후를 바꾸기 쉽다. 특히 명량 해전은 임진왜란 초기 전투가 아니라 정유재란기에 일어난 전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진왜란 사건은 먼저 연도 묶음으로 판단한다. 1592년의 옥포·진주성, 1593년의 평양성 탈환, 1597년의 명량, 1598년의 노량 순으로 배열한다. 같은 1592년 사건끼리는 옥포 해전이 제1차 진주성 전투보다 앞선다.

암기 포인트

옥포·진주성 → 평양성 → 명량 → 노량: 초기 승전에서 평양성 탈환을 거쳐 명량·노량의 마지막 해전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0. 다음 신문 창간 이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의 일까지 게재하여 국중(國中)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널리 알리기로 하고 … (중략) …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주고, 장사의 이익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니 … (하략) …

— 「순보서(旬報序)」 —

① 세계정세를 전하는 『해국도지』가 소개되었다.
② 베트남 역사에 관련한 『월남망국사』가 번역되었다.
③ 식산흥업을 강조한 『대한자강회월보』가 간행되었다.
④ 국내외 정보를 제공한 『독립신문』이 서재필에 의해 발간되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박문국을 설치하여 외국 기사를 번역·보도하겠다는 『한성순보』의 「순보서」이다. 이 문제는 1883년에 창간된 『한성순보』보다 앞선 세계 인식의 확산과, 그 뒤에 나온 계몽기 신문·저술을 시기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성순보』는 박문국에서 1883년에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주로 정부 관리와 개화 지식층에게 국내외 정세를 알렸다. 『해국도지』는 청의 위원이 편찬한 세계 지리서로, 19세기 중엽 조선에 들어와 세계 정세와 서양 문물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다.
『월남망국사』·『대한자강회월보』·『독립신문』은 모두 『한성순보』 창간 뒤에 등장한 자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해국도지』는 19세기 중엽 조선에 소개되어 세계 각국의 지리·정세에 관한 인식을 넓혔다. 1883년 『한성순보』 창간 이전의 사실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한성순보』 창간 이전에 『월남망국사』가 번역되었다는 시간 관계이다. 『월남망국사』는 1905년에 간행되었고, 조선에서는 1906년에 『황성신문』에 발췌·번역되어 연재되었다. 올바르게는 『한성순보』 창간 뒤의 사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대한자강회월보』를 『한성순보』 창간 이전의 자료로 본 점이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조직되었고 『대한자강회월보』도 그 기관지로 발간되었다. 올바르게는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기, 즉 『한성순보』 창간 뒤의 자료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독립신문』의 발간을 『한성순보』 창간 이전으로 보는 점이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신문』은 1896년에 창간되어 국내외 정보와 근대적 계몽 내용을 실었다. 올바르게는 『한성순보』 창간 뒤의 사실이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각 자료의 설명 자체는 대체로 맞지만, 문제의 기준은 '한성순보 창간 이전'이다. 『월남망국사』와 대한자강회, 『독립신문』을 개항기·애국 계몽기의 익숙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앞 시기에 배치하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문·저술 문제에서는 먼저 기준 자료의 창간·간행 시기를 고정한다. 『한성순보』는 1883년이므로, 19세기 중엽에 들어온 『해국도지』는 앞선 자료이고 1896년의 『독립신문』과 1905~1906년의 자료들은 뒤의 자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해국도지(19세기 중엽) → 한성순보(1883) → 독립신문(1896) → 월남망국사 번역·대한자강회월보(1906) 순서이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이 시대'에 편찬된 의학서적으로 옳은 것은?

중의전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붙여졌다. 중의전에서는 이전 왕조인 이 시대 태조를 비롯한 여러 명의 왕을 제향하고, 신충겸과 정몽주 등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신을 배향하였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숭의전지(崇義殿址)는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① 『의방유취』
② 『향약구급방』
③ 『향약집성방』
④ 『동의수세보원』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숭의전에서 제향한 태조와 신숭겸·정몽주를 단서로 '이 시대'를 고려로 파악하고, 고려의 의학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숭의전은 고려 태조와 고려의 공신·충신을 제향한 사당이다. 고려의 의학서인 『향약구급방』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인 향약을 이용한 구급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다.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 때 편찬되었고, 『동의수세보원』은 조선 말기에 저술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방유취』는 조선 세종 때 편찬된 대규모 의학 백과사전이다. 틀린 표현은 고려 의학서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조선 전기 의학서이다.

② O. 『향약구급방』은 고려 때 편찬된 의학서로, 향약을 활용한 구급 처방을 담고 있다.

③ X.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 때 편찬되어 향약 의학을 집대성한 책이다. 틀린 표현은 고려 의학서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조선 전기 의학서이다.

④ X. 『동의수세보원』은 이제마가 사상의학을 정리한 조선 말기의 의학서이다. 틀린 표현은 고려 시대 편찬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조선 말기 의학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제목에 '향약'이 들어 있어 고려의 『향약구급방』과 혼동하기 쉽다. 향약 관련 의학서라도 『향약집성방』은 세종 때의 편찬물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의 인물부터 시대를 확정한다. 태조·신숭겸·정몽주가 함께 제시되면 고려를 떠올리고, 의학서는 제목의 향약만 보지 말고 『향약구급방』은 고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는 세종 때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고려 향약은 『향약구급방』, 세종 향약은 『향약집성방』이다.

NoteBase

문 12. (가)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가) 황제가 영원히 가시던 길에 엎드려 크게 통곡하던 우리는 … (중략) …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기백과 책동이 발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

① 일본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일본이 간도를 청에 귀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유생 의병장 중심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④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국장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가)가 순종임을 파악하고, 순종 재위 기간인 1907~1910년의 사실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종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재위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다. 고종 재위의 을사늑약은 1905년에 체결되어 순종 즉위 이전의 사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본은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순종 재위 기간의 사실이다.
② O. 일본은 1909년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순종 재위 기간의 사실이다.
③ O. 1907년 의병장들은 유생 의병장을 중심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순종 재위 기간의 정미의병 활동이다.
④ X.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는 1905년 을사늑약의 결과이다. 틀린 표현은 '순종 재위 기간'에 해당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고종 재위 시기의 사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대한제국 말기의 대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익숙하지만, 통감부 설치와 외교권 박탈은 1905년으로 순종 즉위 전이라는 연도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황제의 재위 기간을 먼저 정한 뒤 선지의 사건 연도를 배열한다. 순종 재위는 1907~1910년이므로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1909년 간도 협약은 해당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은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고종 시기 1905 을사늑약·통감부, 순종 시기 1907 정미의병·1908 동양척식주식회사·1909 간도 협약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3. 6·25 전쟁 발발 이후부터 정전협정 체결 이전까지 발생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② 유엔군 측은 자유의사에 따른 포로 송환 방침을 제안하였다.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관철되었다.

④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6·25 전쟁 발발 후부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전까지의 정치·외교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되었다. 발췌 개헌은 1952년, 반공 포로 석방은 1953년에 이루어져 모두 정전 이전의 일이다. 반면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한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의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6월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② O. 유엔군 측은 포로 송환에서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침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전회담의 주요 쟁점이었다.
③ X. 틀린 표현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였다는 부분이다. 이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일어났다.
④ O. 발췌 개헌안은 정부안과 국회안을 발췌하여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 관철한 개헌이다. 1952년 전쟁 중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오답 포인트

③의 사사오입 개헌과 ④의 발췌 개헌은 모두 이승만 정부 시기의 개헌이지만, 발췌 개헌은 1952년 전쟁 중이고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정전 이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기 문제에서는 먼저 기준점을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정한다. 발췌 개헌→1952년, 반공 포로 석방→1953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의 순서로 대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발췌 개헌은 1952년 직선제,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배제이다.

NoteBase

문 14. 조선 후기의 농업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벼농사에서 이앙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이 늘어났다.

② 담배, 인삼, 채소 등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다.

③ 고구마 종자는 청(淸)에 파견된 연행사가 가져왔다.

④ 밭에서의 재배 방식으로 견종법(畎種法)이 보급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후기 농업 기술의 발달, 상품 작물 재배, 구황 작물의 전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앙법은 모를 길러 옮겨 심는 벼농사 방식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상품 작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이며, 담배·인삼·채소 등이 해당한다. 고구마는 통신사 조엄이 일본에서 들여왔고, 견종법은 밭에 고랑을 내어 씨를 뿌리는 재배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앙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벼농사의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늘어났다.
② O. 조선 후기에는 담배·인삼·채소 등의 상품 작물 재배가 발달하여 상업적 농업이 성장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청에 파견된 연행사'이다. 고구마는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조엄이 들여왔다.
④ O. 견종법은 밭에 고랑을 내고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조선 후기 밭농사에 보급되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고구마의 전래 경로를 청의 연행사와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고구마는 일본에서, 감자는 청에서 들어온 작물로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후기 농업 변화는 이앙법·견종법의 재배 기술, 담배·인삼 등의 상품 작물, 고구마·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나누어 전래 경로와 특징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고구마는 조엄·일본, 감자는 청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항일 민족 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①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②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③ 대한국민회를 조직하였다.
④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전서숙 설립과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이상설을 파악하고, 독립운동 단체와 인물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상설은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을 세운 교육 운동가이며, 1907년 이준·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된 인물이다. 대한광복군정부는 이상설이 1914년 연해주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경학사는 서간도 이주 한인들이 자치와 교육을 위해 조직한 단체이고,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경학사는 이상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경학사를 조직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이회영·이상룡 등 서간도 이주 한인들이 1911년 조직하였다.
② X. 독립의군부는 이상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1912년 조직하였다.
③ X. 대한인국민회는 이상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안창호 등이 미주 한인 단체를 통합하여 조직하였다.
④ O. 이상설은 1914년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모두 독립운동 단체 이름을 제시하지만 조직 인물을 이상설로 바꾸어 놓았다. 각 단체의 실제 조직 인물인 이회영·이상룡(경학사), 임병찬(독립의군부), 안창호(대한인국민회)를 이상설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전서숙·헤이그 특사라는 단서가 나오면 먼저 이상설을 떠올린다. 이후 단체의 활동 지역과 대표 인물을 대조한다. 서간도 경학사, 미주 대한인국민회, 연해주 대한광복군정부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이상설: 서전서숙·헤이그 특사·연해주 대한광복군정부이다.

NoteBase

문 16. (가) ~ (다)와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 모두 고르면?

(가)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루하기에 힘쓰며, 예불과 독경을 하고 나아가서는 노동에도 힘을 쓸자.
(나)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할 일입니다.
(다) 나는 옛날 공의 문하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 수선사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 (중략) … 유교와 불교는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ㄱ. (가) - 불교의 세속화에 반대하고 불교 본연의 자세를 찾으려 하였다.
ㄴ. (나) - 불교 행사를 장려하는 구실이 되었다.
ㄷ. (다) -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후기 불교계의 개혁 운동, 유교 정치 이념의 정립, 유불 일치 사상을 제시문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지눌의 정혜결사로, 세속화된 불교계를 비판하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을 추구한 운동이다. (나)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로, 불교는 개인의 수양과 내세를 위한 것이고 유교는 국가 통치의 근원이라는 유교적 정치 이념을 드러낸다. (다)는 혜심의 유불 일치 사상으로, 유교와 불교의 근원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가)의 지눌은 불교계의 세속화와 이익 추구를 비판하고 불교 본연의 수행 자세를 회복하려 하였다. 반면 (나)는 최승로가 유교를 국가 통치의 근원으로 제시한 시무 28조이므로 불교 행사를 장려한 근거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불교 행사를 장려하는 구실'이며, 올바르게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근거'이다.
② O. ㄱ과 ㄷ이 모두 옳다. (가)는 지눌의 정혜결사로 불교 본연의 수행을 회복하려 한 운동이고, (다)는 혜심이 유교와 불교의 일치를 주장한 사상으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③ X. ㄴ이 틀리고 ㄷ만 옳다. (나)의 핵심은 불교 행사 장려가 아니라 유교를 국가 통치의 근원으로 본 점이다. 틀린 표현은 'ㄴ'이며,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④ X. ㄴ이 틀리므로 ㄱ, ㄴ, ㄷ을 모두 고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ㄴ'이며, 올바르게는 '(나)는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한 시무 28조'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라는 표현만 보고 불교 행사를 장려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어지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할 일'이 핵심이므로, 이는 최승로가 유교 중심의 통치를 강조한 내용이다. 불교 행사 장려는 태조의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한 내용과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서 정혜를 닦자는 내용은 지눌의 정혜결사로 판단한다. 불교는 개인 수양, 유교는 국가 통치라고 역할을 나누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로 판단한다.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은 혜심의 유불일치 사상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지눌은 정혜결사로 불교 개혁, 최승로는 시무 28조로 유교 정치, 혜심은 유불 일치로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NoteBase

문 17. (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ㄱ.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ㄴ. 징병제로 한국인 청년들이 군인으로 끌려갔다.
ㄷ. 항일 무장 부대인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었다.
ㄹ. 비밀결사 조직인 조선건국동맹이 조직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일 전쟁이 일어난 1894년부터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1940년까지의 일제 강점기 관련 사건의 시기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가총동원법은 중일 전쟁 뒤 전시 동원을 위해 1938년에 제정된 법이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항일 무장 부대로 1938년에 결성되었다. 반면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와 비밀 결사 조선건국동맹의 조직은 모두 1944년의 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1938년으로 범위 안이지만, ㄴ의 '징병제로 한국인 청년들이 군인으로 끌려갔다'는 1944년의 일이다. 틀린 표현 → ㄴ이 범위 안이라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ㄴ은 1940년 이후의 사실이다.
② O — ㄱ 국가총동원법 제정과 ㄷ 조선의용대 결성은 모두 1938년에 이루어져 (가)와 (나) 사이의 사실이다.
③ X — ㄴ의 징병제 실시와 ㄹ의 조선건국동맹 조직은 모두 1944년에 이루어졌다. 틀린 표현 → ㄴ, ㄹ이 제시된 시기 사이의 사실이라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둘 다 1940년 이후의 사실이다.
④ X — ㄷ 조선의용대 결성은 1938년이지만, ㄹ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에 조직되었다. 틀린 표현 → ㄹ이 범위 안이라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ㄹ은 1940년 이후의 사실이다.

오답 포인트

ㄱ·ㄷ은 모두 1938년의 사건이고, ㄴ·ㄹ은 모두 1944년의 사건이다. 일제 말기의 강제 동원과 건국 준비 활동을 모두 광복군 창설 이전으로 잘못 묶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건 사이의 사실을 묻는 문제는 먼저 양 끝 사건의 연도를 정한 뒤, 각 사건을 그 기간 안과 밖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1894년과 1940년 사이인지가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1938년 국가총동원법·조선의용대, 1944년 징병제·조선건국동맹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진덕 여왕 2년)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나에게) 할 말이 있는가 하기에 김춘추가 말하였다.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번 침략을 해왔는데, 더구나 왕년에는 대대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쳐들어와 수십 성을 함락했습니다. … (중략) … 만약 폐하께서 당나라 군사를 빌려 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 출동을 허락하였다.
— 『삼국사기』 —

① 백제군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② 계백이 이끄는 5천 결사대가 저항하였다.

③ 대무예가 당나라의 등주(登州) 지역을 선제공격하였다.

④ 백제 부흥군이 200여 성을 탈취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김춘추가 당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게 된 배경인 백제의 대(對)신라 공세와, 그 뒤에 이어진 삼국 간 전쟁의 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백제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하는 등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신라는 김춘추를 당에 보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고, 이는 뒤에 나당 연합의 기반이 되었다.
대야성 함락은 백제의 신라 공격 국면, 황산벌 전투는 나당 연합군의 백제 멸망 과정, 백제 부흥 운동은 멸망 이후의 사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백제군은 의자왕 때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백제의 강한 대신라 공세 때문에 신라가 당의 군사 원조를 구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② X. 계백이 이끈 5천 결사대의 황산벌 전투는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이 사건을 김춘추의 대당 원조 요청 배경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백제 멸망 직전의 저항이다.
③ X. 대무예의 등주 선제공격은 발해가 당과 대립하던 732년의 사건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백제·신라·당의 관계와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발해의 대당 군사 행동이다.
④ X. 백제 부흥군의 200여 성 탈취는 660년 백제 멸망 뒤 부흥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신라의 대당 원조 요청 이전의 배경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백제 멸망 이후의 사건이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모두 백제와 관련되어 있어 시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②는 백제 멸망 직전, ④는 백제 멸망 이후의 사건이다. ③은 발해사 사건이므로 삼국 통일 전쟁의 맥락에서 바로 제외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김춘추의 대당 외교와 군사 원조 요청이 보이면 먼저 백제의 대신라 공세를 찾는다. 이어 백제 멸망 전후와 발해의 대당 항쟁을 연표상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야성 함락 → 김춘추의 대당 외교, 황산벌 → 백제 멸망 직전, 200여 성 탈취 → 백제 부흥 운동이다.

NoteBase

문 19. (가)와 고려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사신인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청자의 우수함을 서술하였다.

②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어 (가)를 몰아내고,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③ (가)가 빼앗긴 지역의 반환을 간청하자, 고려는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돌려주었다.

④ (가)는 1115년 나라를 세운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와 주변 국가의 교류를 나타낸 도식에서 여진이 세운 금을 (가)로 파악하고, 금·여진·송과 고려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도식의 (가)는 고려 북방에서 교류하고 1115년에 건국한 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서긍은 (가)인 금의 사신이 아니라 송의 사신이다. 서긍은 1123년에 고려에 와서 『고려도경』을 남겼고, 그 책에서 고려청자를 비롯한 고려의 문물을 기록하였다. 틀린 표현은 '(가) 사신'이며, 올바르게는 '송 사신'이다.

② O. 고려는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 윤관에게 별무반을 이끌게 하였고,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③ O. 동북 9성은 여진 지역에 설치된 것이어서 여진이 반환을 요청하였다. 고려는 여진이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이를 돌려주었다.

④ O. 여진족의 아골타가 1115년에 금을 세운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고려도경』과 고려청자라는 친숙한 단서 때문에 맞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서긍의 소속 국가를 금으로 바꾼 것이 오류이다. 『고려도경』의 저자는 송 사신 서긍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북방의 (가)는 1115년 건국과 군신 관계 요구라는 단서로 금을 먼저 확정한다. 이어 인물의 소속 국가는 별도로 확인하여, 서긍은 송, 윤관과 별무반은 여진 대응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여진 → 금 건국(1115) → 고려에 군신 관계 요구, 송 사신 서긍 → 『고려도경』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담화가 발표된 시기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 (중략) …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① (가): 7·4 남북 공동 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사이
② (나):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과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 시작 사이
③ (다):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 시작과 6·15 남북 공동 선언 사이
④ (라): 6·15 남북 공동 선언과 10·4 남북 공동 선언 사이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을 남북 관계 사건의 연표에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금융실명제가 부정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제도라고 강조한 1993년의 담화이다.

핵심 개념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게 하여 차명 거래와 불법 자금 은닉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1993년에 실시되었으므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뒤와 1998년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 시작 사이에 놓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부터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전까지의 시기이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실시되었다. 틀린 표현은 '(가)'이며, 올바르게는 '(나)'이다.
② O: (나)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뒤,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 시작 전의 시기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는 이 구간에 해당한다.
③ X: (다)는 1998년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뒤부터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전까지의 시기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이보다 앞선 1993년이다. 틀린 표현은 '(다)'이며, 올바르게는 '(나)'이다.
④ X: (라)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뒤부터 2007년 10·4 남북 공동 선언 전까지의 시기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이보다 훨씬 앞선 1993년이다. 틀린 표현은 '(라)'이며, 올바르게는 '(나)'이다.

오답 포인트

금융실명제를 남북 교류가 본격화된 1998년 이후의 사건으로 묶는 것이 함정이다. 제시문의 핵심어인 '금융실명제'는 남북 관계 사건이 아니라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시기를 먼저 확정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고유 정책·사건으로 연도를 먼저 정한 뒤, 앞뒤 기준 사건과 비교해 해당 구간을 고른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이므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와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이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금융실명제 1993년: 남북 기본 합의서 뒤, 금강산 관광 앞이다.

NoteBase